

# 성서한국

THE KOREAN BIBLE SOCIETY NEWS

2025년 가을 제71권 3호



말씀으로 채워지는  
아프리카의 심장, 말라위



(재)대한성서공회

# 대한성서공회 성경 기증 프로그램

THE KOREAN BIBLE SOCIETY

## 세상을 밝히는 말씀의 빛

한글 성경을 통해 우리 선조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한국 전통 사회의 구습을  
타파·개혁하는 데 앞장서며  
어두운 사회를 밝게 비추는  
빛이 되었습니다.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어두움에 사로 잡혀 사는 이웃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춰주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와 회원님이 보내주신 현금,  
이렇게 사용됩니다!



### 해외 성경 지원

정치적, 경제적, 종교적인 이유로 성경 보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 성서공회들을 돕는 일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 첫 번역 프로젝트 지원

아직도 자신의 모국어로 성경이 번역되지 않은 부족들이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첫 번역'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문자교실 & HIV/AIDS 치유 프로그램 지원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 문자교실을 통하여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돕고, 에이즈 예방과 치유를  
위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이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성경을 보급합니다.



### 국내 성경 지원

국내 미자립교회, 군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등에 성경, 신약, 단편, 전도지 등을 보급합니다.



한국교회와 후원회원들께서 보내주시는 현금은 생명의 말씀을 구하지 못하는 국내와 지구촌 이웃들에게 성경을 보급하는  
사역에 쓰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후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후원문의 080-374-3061 (수신자 부담) / [www.bskorea.or.kr](http://www.bskorea.or.kr)

## 성서한국

2025년 가을 제71권 3호

02 포도에세이  
어둠 속에서 등불 되시는 하나님

04 커버스토리  
말씀으로 채워지는  
아프리카의 심장, 말라위

08 2025 해외 성서 기증 계획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91개 나라에 성경을 보냅니다!

10 『새한글성경』  
기독교영성의 관점에서 본  
『새한글성경』

12 현장 이야기  
힌두의 나라 인도에  
성경을 전하고 왔습니다!

15 후원자 이야기  
믿음의 유산, 성경을 사랑한 어머니

16 우크라이나 후원 보고  
우크라이나에 8차로 성경을 보내다!

18 튀르키예 후원 보고  
튀르키예에 4차로 성경을 보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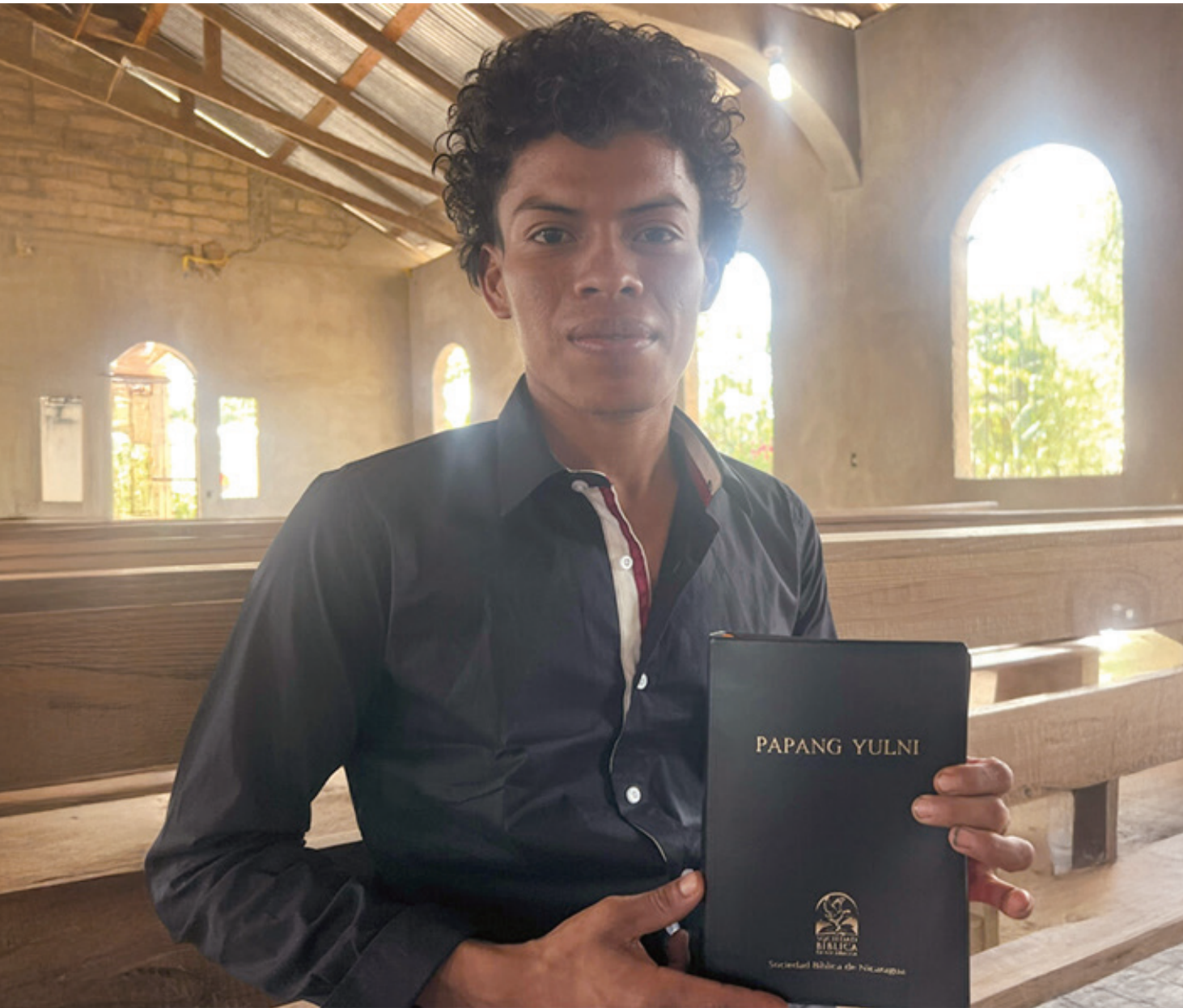
19 후원 이야기

22 대한성서공회 소식  
1. 2024 세계 성서 반포 현황  
2. 아프리카 프랑스어권 성서공회 총무 방한



재단법인 대한성서공회의 설립 목적은 비영리적으로 기독교 성서를 번역,  
출판, 반포하는 데 있습니다.  
본 대한성서공회는 세계성서공회연합회(United Bible Societies)의  
회원국으로서 범세계적인 협조를 통하여 누구나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자기가 낼 수 있는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발행인 겸 편집인 : 권익현  
· 발행처 : 재단법인 대한성서공회  
· 주소 : (06734)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69  
· 성경구입 및 전도지 문의 : 02-2103-8847  
· 지로번호 : 7511327  
· 발행일 : 2025년 9월 30일  
· 인쇄인·인쇄처·편집 : (주)타라티피에스  
\*<https://www.bskorea.or.kr>  
인터넷으로 성경 본문과 성서관련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본지는 도서집지 윤리실천 강령을 준수합니다.(비매품)  
\*성서한국을 e-mail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전화로 문의해 주세요.  
· 회원문의 : 080-374-3061(수신자 부담)



▲ 마양나어 성경을 받은 에만(Eman)

## 어둠 속에서 등불 되시는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삼하 22:29)

코로나와 허리케인으로 모든 것을 잃었던  
니카라과 마양나족 청년 에만(Eman),  
교회는 문을 닫고, 일자리마저 사라진 막막한 현실 속에서  
모국어 성경을 통해 진정한 소망을 발견했습니다.

“저희 같은 소수부족 청년들은 불안한 미래를 걱정하며  
술과 마약에 빠져 방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양나어 성경을 통한 말씀의 은혜로  
저는 앞으로 나아갈 길을 찾았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가장 소중한 등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소수부족 청년들의 삶에  
희망의 빛을 전하고 있습니다.

## 말씀으로 채워지는 아프리카의 심장, 말라위

아프리카 남동부에 위치한 말라위는 '아프리카의 따뜻한 심장'이라고 불릴 만큼 온화한 국민성과 강한 공동체 정신을 가진 나라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세계 최빈국 중 하나로, 말라위 전체 인구의 약 70%가 빈곤선(하루 2.15달러 이하)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여론조사에 따르면, 말라위 국민의 약 58%가 '식량 부족 또는 기근'을 가장 시급한 국가 문제로 꼽았으며, 이는 지난 10년간 정부 개입이 필요한 최우선 과제로 지속적으로 언급되어 왔습니다. 특히 농촌 지역은 전기도 들어오지 않고, 교통과 인프라가 열악하여 복음이 쉽게 전해지지 못합니다.

말라위는 전체 인구의 약 46%가 14세 이하일 정도로 매우 젊은 국가입니다. 어린이와 청소년 인구가 많아 교실당 학생 수가 적게는

50명, 많게는 160명에 달합니다. 이에 비해 교과서와 학습 자료는 턱없이 부족하여 여러 명이 교재 한 권을 돌려 보고, 교사가 부족해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높은 빈곤율, 열악한 교육 환경은 말라위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말라위성서공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외 계층과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사역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말라위의 다음 세대가 말씀 위에 세워지도록 돕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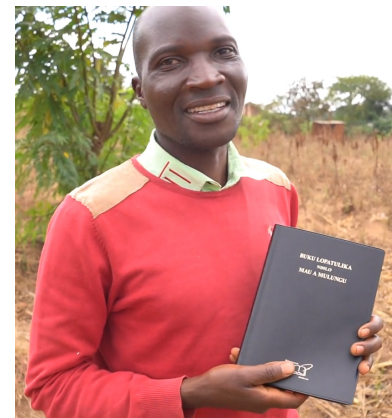
###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말씀

말라위의 기독교 인구는 약 60%에 이르지

만, 교회나 개인이 성경을 구입할 여력이 부족하여 말씀에 대한 접근이 쉽지 않습니다. 많은 가정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하루 1~2끼만 먹는 상황에 놓여 있어, 성경을 마련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특히 농촌 지역의 교회들은 교회에 성경 한 권조차 구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성경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말라위 농촌 지역 중 하나인 나텐제(Nathenje) 마을의 한 노 목사는 오디오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6개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성경을 읽으며 말씀으로 신앙을 세울길 간절히 기다리는 농촌 교회를 위한 성경 보급 행사가 열렸고, 성경을 받기 위해 120여 명의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성경을 받은 이들은 춤추고 노래하며 찬양으로 기쁨을 표현했습니다.

말라위성서공회는 '땅끝 프로젝트(End to End Project)'를 통해 어려움을 겪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성경을 무료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비싸서 구입할 수 없었는데, 이렇게 성경을 받고 읽을 수 있게 되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제가 전도를 할 때 가장 힘들었던 점이 성경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할 것입니다. 이 성경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 더욱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피터(Peter)/나텐제 지역 교회 성도



▲ 성경을 받은 말릴리(Malili) 지역 학교 학생들

## 말씀으로 자라는 다음 세대

말라위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학교에 다니고 있더라도 교사의 부족, 교재 부족, 학습 환경의 열악함 등으로 교육의 질이 낮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식뿐 아니라 올바른 가치관과 삶의 방향을 배우는 데에도 학교 교육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교회 주일학교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성경을 통한 기독교 교육을 제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삶의 방향을 세우고, 신앙적 성장을 경험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말라위성서공회는 ‘젊은 사마리아인 프로그램(Young Samaritan Program)’을 통해 청소년들을 말씀으로 세워가고 있습니다. 지역 학교에 성경을 보급하고, 돌봄 교사들에게는 성경 공부 교재를 제공하여, 학생들이 어릴 때부터 성경을 배우고 올바른 가치관을 세울 수 있도록 돕습니다.

젊은 사마리아인 프로그램은 단순한 성경 보급을 넘어,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하는 성경 공부 소그룹 모임, 드라마, 음악, 성경 낭송과 같은 창작 예술 활동을 통해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게 합니다. 또한 돌봄 교사를 통한 멘토링과 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건강한 가치관을 가진 미래의 리더로 자라도록 돕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성경을 갖고 싶었으나 구하기 어려웠는데 마침내 성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기쁨을 어떻게 다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며 큰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가지고 친구들에게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제 꿈인 목사가 되기 위한 훌륭한 훈련이 될 것입니다.”

-조나단(Jonathan)/  
말릴리 지역 청소년 돌봄 학교 학생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어서 정말 기쁨과 감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생명도 없습니다. 성경을 받은 학생들의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들이 성경을 읽고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될 것입니다.”

-음텐간지라(Mtenganjira)/  
말릴리 지역  
‘젊은 사마리아인 프로그램’ 돌봄 교사

말라위의 많은 청년들은 빈곤, 높은 실업률 속에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말라위성서공회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청년들을 말씀으로 세우기 위해 ‘청년 리더 양성 프로젝트(Youth Catalyst Project)’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강의식 교육이 아니라 청년들이 직접 성경을 배워 교회와 마을 봉사 활동에 참여하고 멘토와 함께 신앙을 점검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진행됩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은 자신감과 목적의식을 가지고 교회와 지역 사회 안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며 공동체

를 변화시키는 사역자로 성장하게 됩니다. 현재 말라위성서공회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매년 약 2천 명의 청년들을 훈련하고 있으며, 앞으로 5년 안에 1만 명 이상의 청년들이 말씀 안에 세워져 말라위 곳곳에서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갈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말라위는 빈곤과 교육 기회 부족 등 많은 어려움에 놓여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며 삶의 길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로 가득한 소망이 많은 나라입니다. 성경은 말라위 사람들에게 삶의 방향을 가르쳐 주며, 어려움 속에 있는 삶을 이겨낼 소망과 용기를 심어 줄 것입니다. 특히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은 말라위의 미래를 세우는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말라위의 사람들이 신앙 안에서 굳건히 서고, 다음 세대가 말씀을 중심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성경을 보내주세요! 📖



성경이 필요한  
말라위 현장 영상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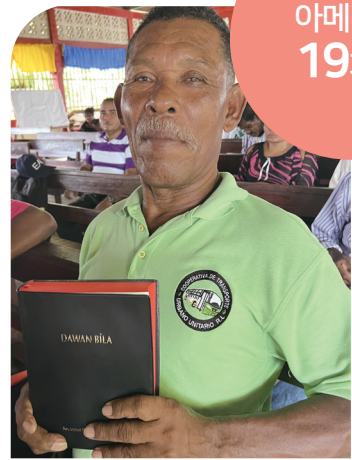
10만 원을 헌금하시면 10명의 사람들에게 성경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간절히 기다리는 말라위 사람들에게 보내는 컨테이너에 성경이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후원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후원 문의 ☎ 080-374-3061(수신자 부담)

#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91개 나라에 성경을 보냅니다!

· 짧은글씨 - 성경이 발송된 나라 (2025.09.08. 기준) / 총 958,535부 기증

\* 한국교회와 후원회원들께서 후원하신 성경은 전 세계 미자립 성서공회들의 성경 기증 프로그램 및 성경 보급 사업 지원에 사용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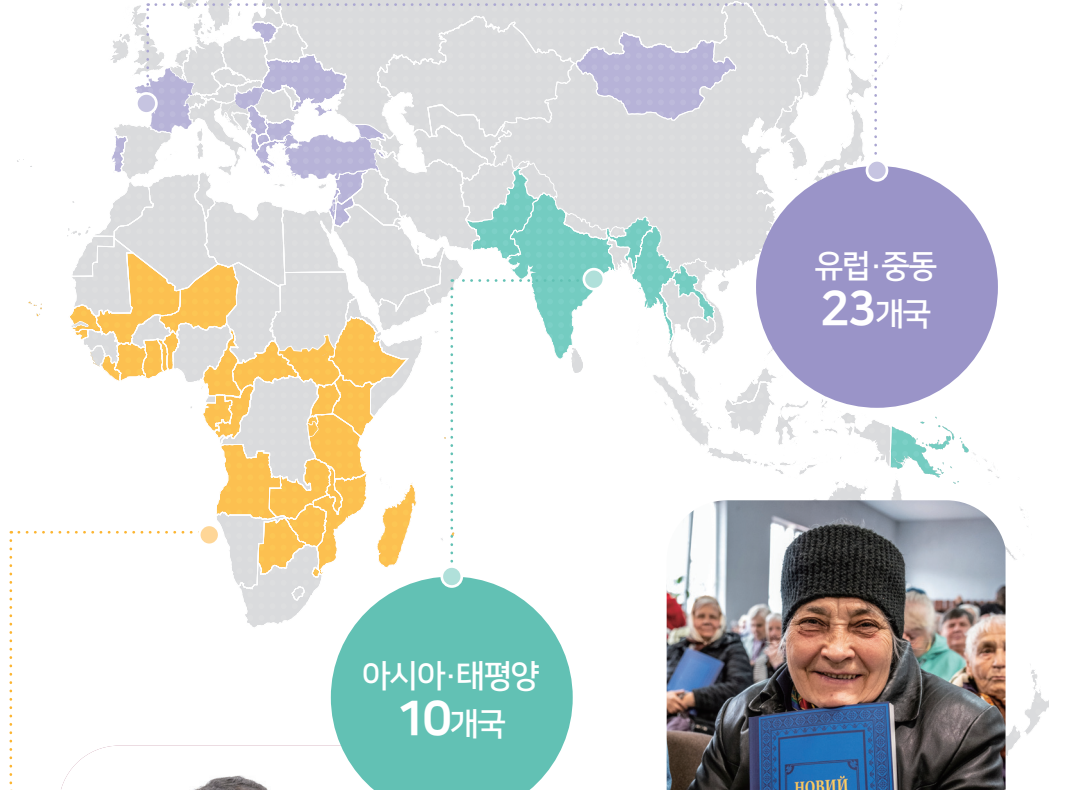
아메리카  
19개국

과테말라, 네덜란드령 카리브,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멕시코,  
볼리비아, 수리남, 아르헨티나,  
아이티, 에콰도르, 온두라스,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쿠바,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아프리카  
39개국

가나, 가봉, 감비아, 기니, 기니비사우, 나미비아, 남수단,  
니제르, 라이베리아,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리셔스, 모잠비크, 베냉, 보츠와나, 부룬디, 부르키나파소,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세이셸, 시에라리온, 앙골라,  
에리트레아, 에스와티니, 에티오피아, 우간다, 잠비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짐바브웨, 차드, 카메룬, 카보베르데,  
케냐, 코트디부아르, 콩고공화국, 탄자니아, 토고



아시아·태평양  
10개국

남태평양, 대만,  
라오스, 몽골,  
미얀마, 스리랑카,  
인도, 태국,  
파키스탄,  
파푸아뉴기니



유럽·중동  
23개국

그리스, 레바논, 리투아니아,  
북마케도니아, 몰타, 불가리아,  
세르비아, 슬로베니아, 시리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알바니아, 요르단, 우크라이나,  
이란 디아스포라, 이스라엘, 조지아,  
크로아티아, 튀르키예, 팔레스타인,  
포르투갈, 프랑스, 헝가리

## 기독교영성의 관점에서 본 『새한글성경』

이강학(햇볼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교수)

기독교영성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하나님 경험과 그로 인한 삶의 변화에 초점을 맞춥니다. 기독교영성에서 자주 사용하는 용어인 영성형성(Spiritual Formation)은 기독교인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영적으로 형성되어 가는 과정을 일컫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성형성을 위해, 은혜의 방편으로 많은 영성훈련 방법들을 알려 주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영성훈련 중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성경 본문을 반복해서 읽고 암송하며 묵상하다가 깨달은 것을 실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기독교인의 일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영성훈련입니다. 기독교인의 영성형성에 성경 읽기와 묵

상이 중요한 만큼,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이 잘 이해할 수 있고 편안하게 느끼는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일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새한글성경』은 그 번역 취지대로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가 잘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되었습니다.

기독교 전통에서 오래된 성경 묵상 방법으로 ‘거룩한 독서’가 있습니다. 거룩한 독서에서 소개하는 묵상 방법은 ‘① 읽기 - ② 묵상하기 - ③ 기도하기 - ④ 바라보기’의 네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성경 본문을 반복해서 읽다가 가장 마음을 사로잡는 한 구절을 선택하여 깊이 묵상합니다. 그리고 묵상을 통해 깨달은 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린 후, 하나님의 임재 안에 고요히 머무르면서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특히 『새한글성경』으로

반복해서 읽을 때 묵상으로 쉽게 이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언어에 가장 가깝게 번역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본질에 충실하며, 문학적으로도 전혀 어색함이 없는 번역이라는 점도 그 이유입니다.

저는 기독교영성 교수로서 신학생들의 영성형성에 도움이 되도록 모든 수업을 시작할 때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집니다. 신학대학원 1학년 1학기 <영성형성> 수업 시간에는 시편을, 다른 선택 과목 수업에서는 복음서나 서신서를 함께 읽고 묵상합니다. 또한 3박 4일간의 침묵 영성수련을 인도할 때에도, 제가 성경을 반복해서 읽어 주고 묵상을 안내합니다. 『새한글성경』이 출판된 이후로는 『새한글성경』으로 읽고 묵상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결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새한글성경』은 문장의 호흡이 짧아 가독성이 좋습니다. 성경 묵상은 말씀을 소리 내어 읽는 데서 시작하기에 문장의 길이가 독자에게 무척 중요합니다. 한 문장의 길이가 길면 낭독자가 호흡을 조절하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새한글성경』의 문장은 호흡에 맞춰 소리 내어 읽기가 좋고 편안합니다.

둘째, 『새한글성경』의 시편은 문학 갈래의 특징과 운율이 살아 있어 교육하기에 적합합니다. 교육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 마음으로 고백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공동체성

을 복돋아 줍니다. 공동체 예배 중 『새한글성경』으로 시편을 소리 내어 교육하면 그 감동을 더욱 느낄 수 있습니다. 한 구절씩 번갈아 읽거나, 각 구절을 절반으로 나누어 교육하면 됩니다.

셋째, 『새한글성경』에서 존댓말을 사용하는 예수님은 더 가깝고 친근한 분으로 느껴 집니다. 기독교영성의 관점에서 복음서를 묵상하는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는 높은 위치에서 자비를 베푸시는 분으로 다가왔으나, 『새한글성경』의 예수님은 우리 곁에서 우리를 존중하시며 사랑하시는 분으로 다가옵니다.

저는 신학생들이 『새한글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앞으로 목회와 사역 현장에서 『새한글성경』을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



▲ 『새한글성경』을 활용한 신학대학원 영성수련 과정

# 힌두의 나라 인도에 성경을 전하고 왔습니다

세계 인구수 1위, 인도. 수많은 민족과 언어, 종교가 공존하는 여행자들의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곳의 기독교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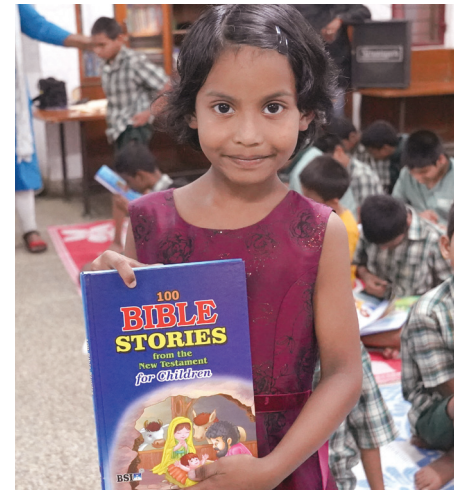
불타는 교회를 마을 사람 모두가 지켜보고 있지만, 누구 하나 나서지 않습니다. 인구의 80%가 힌두교를 믿는 이 나라에서 교회와 기독교인들은 차별과 핍박의 대상입니다. 특히 급진 힌두 민족주의자인 힌두트바(Hindutva)들은 기독교 공동체가 국가 정체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하며, 폭력적인 방법을 동원해 공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픈도어선교회에서 제공하는 기독교 박해지수에 따르면 인도는 세계 11위로 박해가 극심한 수준입니다.(출처: 월드와치리스트, 2025) 기독교 인구는 2.3%에 불과하지만, 차별과 핍박 속에서도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신앙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한편 인도는 여성, 어린이, 경제적 하층민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 살아남기 어려운 나라입니다. 사회적 계급이 낮거나 여성일수록 더 큰 차별을 받기에 인도는 '여성에게 가장 위험한 나라' 1위에 꼽히기도 했습니다.(출처: 톰슨 로이터 재단, 2018) 장애가 있거나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난 어린이들도 교육과 돌봄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5년 7월, 본 공회는 인도의 성경 보급 현장에 방문했습니다. 한국교회와 후원회원들의 도움으로 지난 3년간 인도에 후원한 성경은 3만여 부에 이릅니다.

인도성서공회의 안내를 받아 처음 방문한 곳은 지체 장애 어린이들을 보호하고 돌보는 시설인 게리짐(GERIZIM)이었습니다.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부모가 자녀만 남겨두고 떠나거나 보육원에서도 돌보기 어려운 아이들이

모여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나이에 따라 어린이들에게 그림 성경과 성경을 보급하였습니다. 환하게 웃는 어린이들의 모습에서 기쁨과 감사가 묻어났습니다. 어린이들이 함께 부르는 찬양은 화음이 맞지 않고 제각각이었지만, 마치 천사들의 노래처럼 듣는 이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 성경을 받은 게리짐(GERIZIM) 어린이의 모습

다음으로 방문한 곳은 과부와 독거 여성들을 대상으로 사역하고 있는 빈민 지역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인도성서공회는 '인도를 돕는 손길(Helping Hand India)'이라는 사역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2001년부터 시작된 사역은 참석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며 함께 성경 말씀을 나누는 것이 주된 활동입니다. 출신도 다르고 언어도 다양한 여성들은 신앙이 없더라도 함께 모여 식사 교제를 나누고 성경을 읽으며 점차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 자신의 언어로 된 성경을 받고 기뻐하는 여성들

본 공회는 여성들이 사용하는 언어에 따라 성경을 나눠주었고, 어떤 할머니는 그 성경을 자신의 손자에게 주겠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비록 사회에서 소외된 이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위로받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품으며 살아가는 모습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되짚어보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시편 68:5)

마지막으로 저희가 방문한 사역지는 기독교인 운전자 연합회의 정기 모임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툭툭이'라고 부르는 삼륜차 운전기사 중 기독교인들을 모아 시작한 이 단체는 2012년 7명에서 시작해 현재 약 300명의 기



▲ 기독교인 운전자들이 꾸민 특이 모습



▲ 신규 운전자에게 전달된 전도지와 성경 소책자, 성경을 받은 운전자

독교인 운전기사들이 속해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운행하는 차량 외부에 성경 문구를 부착하고, 내부에는 전도지와 성경 소책자를 비치해 생업을 이어가는 동시에 복음 전파에 힘쓰고 있었습니다.

이날 신규 운전기사들에게 차량 내부에 비치할 수 있는 전도지와 성경 소책자를 증정했고, 기존 운전자들에게는 성경을 보급했습니다. 영적 전쟁으로 가득한 힌두의 나라에서 스스로 기독교인임을 밝히며 전도에 힘쓰는 모습에 큰 격려와 도전을 받았습니다.

“소속된 운전기사들은 스스로 기독교인임을 드러내면서 믿음이 더욱 깊어지고, 힌두교가 다수인 이 사회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자로서 자부심을 품게 됩니다.”

- 인도 기독교 운전자회 대표

후원자 한 분, 한 분의 마음이 담긴 성경을 인도 땅에 보급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헌신이 성경을 통해 인도 땅 가운데 소중하게 심겼습니다. 🌍



박효정 사모(후원회원)

▲ 박효정 사모가 어머니께 선물한 성경과 성경 필사를 하는故 이시분 권사의 모습

박효정 사모(말씀세움교회)는 지난 6월 소천하신 어머니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항상 성경을 읽으시던 어머니의 모습이 생각나요.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도 성경 필사를 시작하셨을 만큼 그 열정이 대단하셨죠.”

마지막 병원 생활 중, 어머니의 곁에는 늘 붉은색 보따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 내용물이 너무 궁금해 풀어보았어요. 보따리 안에는 딱 4가지 물건이 들어있었어요.” 소중히 싼 보따리 안에는 가족 앨범, 심방 노트, 말씀 모음집, 낡은 성경이 들어있었습니다. 낡은 성경을 펼치자 박효정 사모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성경은 10여 년 전 대한성서공회 성경 보내기 사역을 정기후원하며 박 사모가 받았던 후원회원 성경이었습니다. 당시 어머니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써 선물한 성경을 소중히 간직하며 읽어오신 것입니다.

박효정 사모의 어머니(故 이시분 권사)는 이북 출신으로 부유한 지주의 딸로 자랐습니다. 하지만 한국전쟁으로 전 재산을 몰수당하며 피난길에 올랐고, 낯선 땅에서 어렵게 뿌리 내려야 했습니다. 그때 노방전도를 통해 복음을 듣게 되며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첫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갔는데 기도 중에 커다란 성경이 어머니께 다가와 부딪치는 경험을 하셨다고 해요. 그때부터 성경과 일평생 함께하시게 된 거죠.”

비록 빈손으로 시작해 고단한 환경 가운데서 가정을 이끌어 온 어머니였지만, 자녀들에게 전해진 믿음의 유산은 가장 값진 것이었습니다. 남은 유품은 붉은 보따리 속 낡은 후원회원 성경뿐이지만, 이 성경은 남겨진 가족들에게 말씀의 소중함을 잊지 않게 하는 귀한 선물이 되었습니다. 📖



# 우크라이나에 8차로 성경을 보내다!

▲ 성경 보급 행사에 참석해 성경을 받은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의 모습

지난 8월 1일, 한국교회의 후원으로 8차 발송분 <우크라이나어 성경> 1천 5백 2십 부와 <우크라이나어 어린이 성경> 8천 7백 부를 우크라이나 사람들에게 발송했습니다. 발송된 성경은 우크라이나 전쟁 피해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질 예정이며, 특히 전쟁 가운데서 큰 불안과 고통을 겪고 있는 어린이들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지 3년 6개월. 오랜 기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분쟁과 공격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5월과 6월에

도 수도 키이우를 중심으로 대규모 미사일과 드론 공격이 이어져 건물들이 파괴되고 큰 인명 피해가 일어났습니다. 이 가운데는 어린이와 의료진 등 약 1,200여 명이 머물던 병원 건물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전쟁의 피해가 지속되며 성경 보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군인들은 정기적인 기도와 성경 지원을 요청하고 있으며, 지역 목회자들은 전쟁으로 상처받은 이들을 돌보기 위해 성경이 간절히 필요하다는 소식을 전해오고 있습니다.



▲ 5월과 6월 미사일 폭격을 받은 수도 키이우(Kyiv) 근방 마을의 모습



▲ 미사일 공격으로 폐허가 된 건물 속에서 절망에 빠진 사람

이처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크라이나성서공회는 끊임없이 성경을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중증 질환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성경 보급 행사를 주최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전쟁 이후 외상 환자뿐 아니라 어린이들의 암, 신경계 질환 건수가 많이 증가했는데, 전문가들은 이를 전쟁 스트레스와 더불어 의료 서비스가 부족해지며 나타난 현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성서공회가 주최한 성경 보급 행사에는 100여 명의 어린이가 참석했고, 레크리에이션과 창작 워크숍, 성경 이야기 공부, 합동 기도회가 진행되었습니다. 행사 후에는 참석한 이들에게 성경을 나누어주었습니다. 이 성경 보급 행사는 전쟁 가운데서도 질병으로 치료를 받는 어린이들에게 영적, 정서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었던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8차로 우크라이나에 보내지는 성경들 또한

전쟁의 피해 속에서 영적으로 목말라 있는 영혼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특히 전쟁의 피해를 가장 크게 느끼고 있는 어린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위로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



▲ 한국교회 후원으로 8차로 발송되는 <우크라이나어 성경> 1천 5백 2십 부, <우크라이나어 어린이 성경> 8천 7백 부

# 튀르키예에 4차로 성경을 보내다!

## 한국교회 후원 튀르키예 튀르키예어 성경 기증

Donation of Turkish Bible to Türkiye  
Donated by Korean Church



KOREAN BIBLE SOCIETY

▲ 한국교회의 후원으로 보내지는 4차 발송분 <튀르키예어 성경> 8,600부

### 튀르키예 성경 발송 내역

| 차수               | 내용       | 부수      |
|------------------|----------|---------|
| 1차<br>(2023년 5월) | 튀르키예어 신약 | 15,873부 |
| 2차<br>(2023년 8월) | 튀르키예어 신약 | 2,985부  |
|                  | 튀르키예어 성경 | 5,000부  |
| 3차<br>(2024년 8월) | 튀르키예어 신약 | 10,800부 |
| 4차<br>(2025년 6월) | 튀르키예어 성경 | 8,600부  |
| 총계               | 43,258부  |         |

지난 6월, 한국교회의 후원으로 4차 발송분 <튀르키예어 성경> 8,600부를 튀르키예에 보냈습니다.

2023년 2월, 튀르키예에 발생한 대지진은 튀르키예 전역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무너진 삶의 자리를 회복해 가는 과정 속에서, 더

키성서공회는 말씀을 통한 위로와 소망을 바라며 성경 지원을 요청해왔습니다. 본 공회는 한국교회의 후원을 받아 튀르키예에 보급할 성경을 제작하였고, 지금까지 튀르키예에 4차례에 걸쳐 총 43,258부의 성경을 발송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한국교회와 협력하여 튀르키예에 성경 보급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튀르키예 대지진 이후, 삶의 회복을 위해 말씀을 필요로 하는 이들이 더욱 많아졌습니다. 한국교회의 후원으로 보내진 성경은 지역 교회를 통해 전해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삶의 소망을 얻고 있습니다.

이번 4차 발송을 통해 더 많은 성경이 튀르키예 땅에 전달되어, 이슬람의 땅에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더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소망을 얻기를 기도합니다. 🙏



▲ 멕시코 마자텍어 구약 번역 및 성경 제작을 위한 후원금 전달식

## 멕시코 마자텍 부족에게 전해질 하나님의 말씀

소망교회 - 멕시코 마자텍어 구약 번역 및 성경 제작 후원금(1억 7천만 원) 전달



2025년 6월 11일, 소망교회(김경진 목사)는 다가오는 2027년 창립 50주년을 기념하며 이를 위한 첫 번째 기념 프로젝트로 아직도 자신의 언어로 된 성경이 없는 멕시코 마자텍 부족의 모국어 성경 번역 및 제작을 후원하기로 작정하고, 지난 1월 19일 온 교회 성도들이 정성을 모아 이를 위해 헌금한 후원금을 본 공회에 전달하였습니다.

마자텍 부족은 멕시코 중남부 오아하카주와 베라크루스주를 중심으로 거주하고 있으며 인구는 약 3만여 명으로 추산합니다. 자신의 언어로 된 성경이 없는 마자텍 부족은 말씀에 기초한 신앙 공동체를 세우고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매우 어려웠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2014년 마자텍 부족에게 전해진 첫 번역 신약성경을 통해 말씀에 기반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부족 복음화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멕시코성서공회 총무 홀리오 스플링커 마르티

네즈는 영상을 통해 “신약 번역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을 때, (마자텍) 기독교 인구는 5%에 불과했지만, 최근 조사에 따르면 20%로 증가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들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도울 것입니다.”라고 첫 번역 성경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며 기대를 전하였습니다.

소망교회 창립 50주년 준비위원회 위원장 박경희 장로는 “우리는 작은 일을 했지만, 작은 일을 통해서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라고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이번에 소망교회의 후원으로 지원하는 멕시코 마자텍어 성경 프로젝트는 현재 구약 번역이 진행 중이며, 번역이 완료되면 2027년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을 제작하여 멕시코로 보내는 기증예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 기증하는 〈자이와어 성경〉을 들고 있는 우종철 은퇴 목사 부부 / 김종훈 장로 부부

## 미얀마 자이와 부족에게 임할 축복을 기대합니다

진남제일교회, 기독교대한감리회 남선교회 중부연회연합회, 김종훈 장로, 하늘꿈교회

- 미얀마 〈자이와어 성경〉 4,998부 기증



2025년 6월 26일, 진남제일교회(김대영 목사), 기독교대한감리회 남선교회 중부연회연합회, 김종훈 장로(산곡교회), 하늘꿈교회(신용대 목사)의 후원으로 번역된 〈자이와어 성경〉 4,998부를 미얀마에 보내는 기증 예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기증 예식에서 진남제일교회 우종철 은퇴 목사는 “오늘 이 자이와어 성경책을 본 부족들이 이 말씀을 가장 귀한 선물로 받아들이고 신뢰한다면 저들의 앞날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몸과 영혼이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라고 자이와 부족에게 임할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했습니다.

미얀마성서공회 사무엘 아예 라 총무는 영상 인사를 통해 “자이와 부족은 이제 자신들의 언어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읽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심을 깨닫고 더 깊이 있게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기쁨을 나눴습니다.

미얀마 북부 카친(Kachin) 지역과 국경 넘어 중국에도 거주하는 자이와(Zaiwa) 부족은 인구 약

10만 명의 소수 부족으로, 악령 숭배 문화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적 배경으로 인해 자이와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부족 사람들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고, 교육과 의료 서비스 시설도 부족하여 빈곤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들은 성경 한 권을 구하기도 쉽지 않은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이와 부족은 2009년 신약 성경이 번역되어 복음을 접하기 시작했고, 2012년부터 시작된 자이와어 구약 성경 번역 프로젝트는 번역 진행에 여러 어려움을 겪었지만, 13년 만인 2024년에 완료되었습니다.

미얀마 자이와 부족에게 전해지는 〈자이와어 성경〉 4,998부는 악령 숭배 문화 속에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참된 자유와 평안을 전하고, 신약으로만 말씀을 접하던 기독교인들에게 더 깊은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탄자니아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개포동교회 - 탄자니아 〈스와힐리어 성경〉 5,643부 기증



▲ 기증 예식에 참석한 개포동교회 성도들

2025년 7월 8일, 개포동교회(이풍인 목사)의 후원으로 탄자니아에 〈스와힐리어 성경〉 5,643부를 보내는 기증 예식을 가졌습니다. 개포동교회는 금년, 부활절을 기념하며 온 성도가 성경 후원을 위해 헌금하였으며, 작년 6월 르완다에 이어 두 번째로 해외 성경 보내기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증 예식에서 개포동교회 이풍인 목사는 “이 성경이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던 우리를 자녀 되게 하셨던 것처럼 탄자니아의 형제자매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라고 성경을 통해 복음이 널리 전파되기를 소망했습니다.

탄자니아성서공회 알프레드 키몽게 총무는 영상 인사를 통해 “탄자니아에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성경을 구할 수 없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성경은 탄자니아 영혼들에게 큰 축복이 될 것입니다.”라고 감사를 전했습니다.

## 잠비아에 하나님의 소망이 임하기를!

김영례 권사, 왕보람 대표 - 잠비아 〈툼부카어 신약〉 5,100부, 〈영어 성경〉 2,330부 기증

2025년 8월 18일, 김영례 권사, 왕보람 대표의 후원으로 잠비아에 〈툼부카어 신약〉 5,100부, 〈영어 성경〉 2,330부를 보내는 기증 예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김영례 권사가 대한성서공회 성경 기증 사역을 위한 홍보대사로 위촉되었습니다. 김영례 권사 가정은 황왕기일 장로의 유지에 따라 8년째 해외 성경 보내기를 위해 헌신하고 있으며, 이번 잠비아까지 10개 나라에 총 56,252부의 성경을 후원하였습니다. 특별히 지난 7월, 김영례 권사는 아프리카 잠비아의 성경 보급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현지인들에게 성경을 무료로 반포하며, 잠비아 성경 후원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 잠비아 키냐마(Kinyama) 지역 학교에 방문하여 성경을 전달한 김영례 권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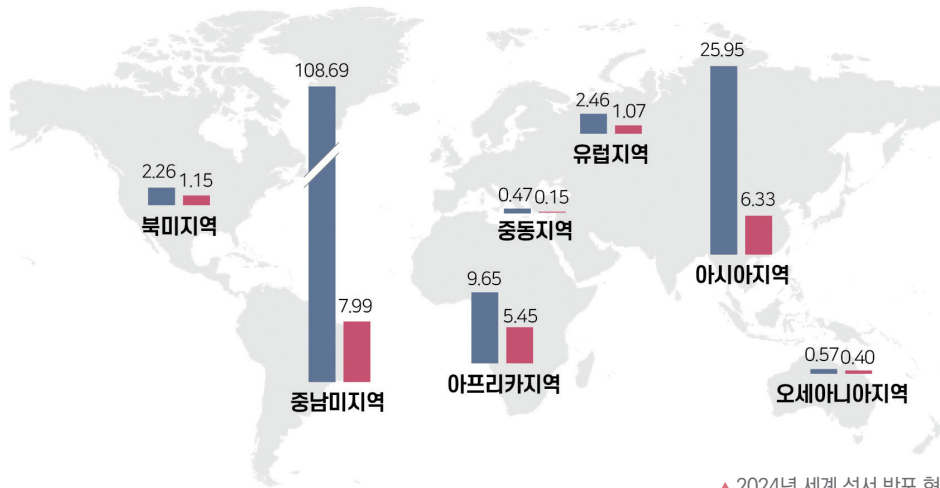
잠비아성서공회 아브라함 치카사 총무는 영상 인사를 통해 “성경이 절실히 필요한 이들에게 김영례 권사님을 통해 성경이 보급된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라고 감사를 전했고, 김영례 권사는 “이 나라는 먹을 것이 없고 물이 없어서 가슴 아픈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사랑하는 열정은 우리보다 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도 복을 많이 주신 것처럼 잠비아에도 소망을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라고 잠비아에 하나님의 소망이 임할 것을 기대했습니다. 🙏

# 1 2024 세계 성서 반포 현황

2024년 한 해 동안 2,250만 부 이상의 성경이 반포되다

단위 : 백만 부

■ 총 성서 반포 부수 150.0  
■ 성경전서 22.5 (인터넛다운로드 불포함)



▲ 2024년 세계 성서 반포 현황

세계성서공회연합회가 발표한 2024년 세계 성서 반포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전 세계 성서공회들은 2천 2백 5십만 부 이상의 성경전서를 보급하였습니다. 신약, 단편 성서와 어린이를 위한 성서를 포함하면 총 1억 5천만 부가 넘는 성서가 반포되었습니다.

세계성서공회연합회 총무 더크 게버스(Dirk Gevers)는 “보급되는 모든 성경은 형식에 관계없이 살아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진리와 위로, 변화를 소망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연결점이 됩니다. 2024년 통계는 성경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전 세계에 도달했는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성경을 전하는) 사명이 얼마나 긴급하고 필요한 일인지를 나타냅니다. 우리의 사명은 모든 이들이 자신의 언어와 자기가 선호하는 형태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참여하도록 끊임없이 성경을 보급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더욱 담대하게 연합하여 소망 안에서 섬겨 나아가길 기도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 성경을 받은 라이베리아 청소년

## 라이베리아 청소년을 세우는 성경

라이베리아는 청소년이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이들을 긍정적으로 성장, 발전시키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라이베리아성서공회는 “청소년을 위한 성경-그리스도를 위한 새로운 국가 건설”이라는 프로젝트를 시작하였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5천 권의 성경을 수도 몬로비아(Monrovia)와 그 주변 지역의 청소년들에게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라이베리아 청소년들이 직면한 어려움을 이해하는 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라이베리아의 청소년은 480만 인구 중 65%를 차지합니다. 보고에 따르면 많은 젊은이가 범죄 활동에 연루되거나 약물 남용, 착취, 방치 등 다양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라이베리아성서공회는 복음이 가진 변화의 능력이 라이베리아의 청소년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제공함으로써, 그들 안에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을 경작해 나아가고 영적으로, 또 도덕적으로도 올바른 세대로 자라도록 토대를 다지는 것이 이 프로젝트의 핵심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학교, 지역 공동체와 교회 등을 통해 15~24세에 이르는 청소년과 젊은이들에게 성경을 제공하고 적극적으로 사용하게끔 장려하고 있습니다. 대한성서공회는 2024년 한 해 동안 라이베리아의 다음 세대가 신앙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4,980부의 성경을 기증하였습니다. 🌐

## 2 아프리카 프랑스어권 성서공회 총무 방한 - 사역 교류 및 협력 강화



▲ 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아프리카 프랑스어권 성서공회 총무들 / '서울 선언문' 전달(왼쪽부터 본 공회 권의현 사장, 가봉 띠에리 마비알라 총무)

2025년 8월 25일부터 29일까지 본 공회에서는 아프리카의 프랑스어권에 속하는 10개국(부르키나파소, 가봉, 카메룬, 말리, 세네갈, 코트디부아르,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차드, 부룬디, 모리셔스) 성서공회 총무들을 초청하여 각 나라에서의 성경 보급과 선교 현황을 공유하고, 앞으로의 사역 협력을 위한 교류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프리카 프랑스어권 성서공회들은 최근 몇 년간 리더십의 세대교체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번에 내한한 10개국 성서공회 총무들은 일부 시니어 총무들과 총무 재직 기간이 2년 미만인 대다수의 신임 총무들로 구성되었습니다. 한국 및 본 공회 방문이 처음인 대다수의 총무들은 자신의 사역 현장에서의 도전과제를 공유하며, 본 공회의 성경 출판, 제작 및 각 나라로의 선적 과정, 모금 활동 실무 전반

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파주 바이블코리아와 용인 성서 반포센터를 방문하여 성서 제작 및 관리 현장을 살펴보고, 후원 교회 방문과 후원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후원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공식 일정 마지막 날인 29일에는 본 공회와의 상호 이해와 연대를 바탕으로 '서울 선언문'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문서에서 아프리카 프랑스어권 성서공회 총무들은 이번 방문이 본 공회와 신뢰와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출발점이 되었으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성서 사업 전 분야, 특히 성서 제작 및 보급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할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또한 기도와 성경 후원으로 함께 동역해 주신 한국의 후원자 및 후원 교회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

매월 전하는 성경,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귀한 사역에 사랑하는 가족,  
지인과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지구촌 이웃들에게 성경을 전하는 일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가족, 지인분들에게 성경을 보내는 기쁨을  
선물해 주세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후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01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하기

홈페이지  인터넷 검색창에 **대한성서공회** 입력하신 후,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 02 전화로 가입하기

후원자 전용 전화  080-374-3061(수신자 부담)

### 03 직접 송금하기

송금 후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금주: (재)대한성서공회)

후원계좌

|                           |                      |
|---------------------------|----------------------|
| 국민은행 070-01-0340-570      | 신한은행 140-009-909678  |
| 우리은행 1005-702-311166      | 수협은행 033-01-085327   |
| 농협은행 355-0025-0990-53     | 우체국 011916-01-000076 |
| KEB 하나은행 224-910049-47104 |                      |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 디모데후서 3:16~17



영상보기

소수부족 성경 후원 캠페인

# 당신의 사랑으로 나의 **첫 성경** 을 읽습니다

전 세계에는 7,398개의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 인구가 적은 언어일수록 성경을 구하기 어렵고  
대다수 소수부족은 성경을 살 형편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전하는 성경은 소수부족에 복음을 전하고  
말씀의 갈증을 삭일 은혜의 소나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딤후 2:4)



**월 1만원으로, 한 영혼이  
자신의 언어로 된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후원 문의 080-374-3061(수신자 부담) 팩스 : 02-2103-8896 / [www.bskorea.or.kr](http://www.bskorea.or.kr)

후원 계좌 수협은행 033-01-085327 ▶ 송금 후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금주 : (재)대한성서공회)



(재)대한성서공회